

중앙대, '인공지능의 몸과 노동' 인공지능인문학 학술대회 개최

28일,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해석 이슈·활용방법 등 논의

송기우 kwsong@ekn.kr

최종 기사입력 2023-04-05 15:14:15

[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에디터] 중앙대학교(총장 박상규)가 28일 '인공지능의 몸과 노동'을 주제로 제27회 인공지능인문학 국내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제27회 인공지능인문학 국내학술대회는 중앙대 인문콘텐츠연구소 HK+인공지능인문학사업단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후원을 받아 개최하는 학술 행사다. 28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중앙대 서울캠퍼스 310관(100주년 기념관)에서 진행한다.

'인공지능의 몸과 노동'을 주제로 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총 3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1부에서는 '인공지능과 물성: 기술 생태학적 조건', '파리협정에 따른 국가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감축 사업의 방향성 제언', 2부에서는 '가상인간은 '생산'하는 몸, 노동, 미디어: 가상인간 로지 사례를 중심으로', '종교와 과학의 관점에서 본 인공지능의 몸과 노동'에 대한 담론을 나눈다. 이어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과 과제: 국내외 인공지능 윤리정책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하는 3부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학술대회를 주관하는 중앙대 인문콘텐츠연구소는 국내 유일의 인공지능인문학 연구기관이다. 2017년 11월부터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인공지능인문학 관련 연구를 수행 중이다. 이찬규 중앙대 국어국문학과 교수가 연구소장을 맡고 있으며, 인문·사회 분야 전문가들과 기술·예술 전문가들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이찬규 인문콘텐츠연구소장은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분석과 해석이 여러 연구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보다 다양한 영역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의 역할이 점점 확대되는 중"이라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인공지능이 인간의 몸과 사회에 끼치는 영향, 특히 환경과 노동 관련 이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27회 인공지능인문학 국내학술대회

인공지능의 몸과 노동

일시 2023년 4월 28일(금) 13:00 ~18:00 (12:30~13:00 등록)

장소 중앙대학교 310관 904호

사회 박상용(중앙대), 김형주(중앙대)
개회사 이찬규(인문콘텐츠연구소 HK+사업단장)

발표 | 토론

인공지능과 물성: 기술 생태학적 조건 - 이광석(서울과학기술대) | 문규민(중앙대)
파리협정에 따른 국가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감축사업의 방향성 제안 - 이충국(한국기후변화연구원) | 정익순(중앙대)
가상인간을 '생산'하는 몸, 노동, 미디어: 가상인간 로지 사례를 중심으로 - 이정현(중앙대) | 허유선(동국대)
종교와 과학의 관점에서 본 인공지능의 몸과 노동 - 전철(한신대) | 최동민(전남대)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과 과제: 국내외 인공지능 윤리정책을 중심으로 - 문정욱(정보통신정책연구원) | 노태영(김앤장)

종합토론

주최  중앙대학교 인문콘텐츠연구소 HK+인공지능인문학사업단

후원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송기우 (kwsong@ekn.kr)

< 저작권자 © 에너지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한민국 경제의 힘, 에너지경 >

[프린트](#) [취소](#)